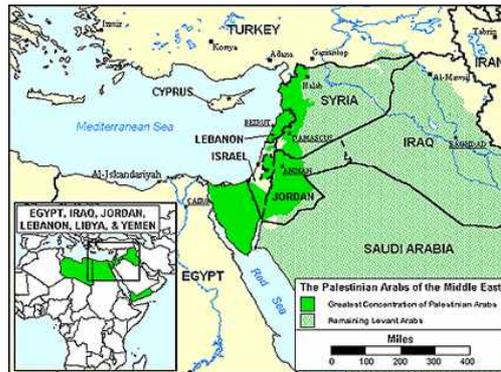


레바논: 팔레스타인계 아랍(Arab, Palestinian of Lebanon)



인 구 : 544,000(joshua project.net)

언 어 : 아랍어, 남부 레반트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미확인

개요 / 역사

전통에 의하면, 진정한 아랍족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20세기 이전에 "아랍"이라는 단어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 등 부족 기반 사회를 뜻하였다. 다른 아랍족으로는 고향 땅에 수 천 년 동안 살았던 종족들이 있다. 아랍족은 단일한 민족이 아니다. 그들의 기원은 복잡하고, 다른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어 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그렇다. 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연속적으로 침입자들의 목표가 되었고, 각각은 이 곳의 사람들과 지역 풍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남겼다. 이것은 이 땅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땅이 유대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라는 독특한 종교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아랍족들,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족들은 지난 천 년 간 이스라엘, 웨스트 뱅크, 가자 기구에 정착하였던 아랍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와 웨스트 뱅크, 가자에 속한 지역에는 지난 천 년 동안 아랍족들이 많이 살았다. 그들 외에도, 베두인, 드루즈, 유대인, 투르크, 쿠르드, 모로칸, 나이지리아 등등의 종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랍인들의 입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결속된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는 희박하며, 그러한 생각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말한다.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아랍 민족주의와 함께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아랍어를 말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특정 가족이나 부족의 일원, 마을이나 지역의 거주민, 또는 무슬림, 크리스천, 유대인으로 인식하였다. 오토만 제국과 같은 더욱 큰 정치 단위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오토만 지배 하에서 "밀렛(millet) 제도"가 발전하였다.

그것은 여러 종교적 집단들이 얼마간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레반트족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는 아직도 유효하다.

팔레스타인이란 단어는 팔레스티니안이라는 종족명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들은 성경 시대에 이 지역의 남부 해안 지역에 거주하였다. B.C 1,000년 경에 팔레스티니안들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은 사용되지 않다가, Ad 132-135년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바 코바의 제 2차 유대인 반란 이후 로마인들에 의해 다시 소개 되었다.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 지역은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들이 패배시킨 유대 반란 세력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도입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수도인 예루살렘 또한 엘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라고 이름 붙여졌다.

1947년 11월 29일, UN 선거는 영국에게 위임되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 개의 국가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대인의 국가와 아랍인의 국가이다. 팔레스타인과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1948년 5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면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의 군대들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이 싸움에서 많은 수의 팔레스티안 아랍인들이 도망을 갔고, 다른 이들은 추방되었다. 이 사건을 아랍어로 "나크바"(비극)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국경을 넓혀갔다. 아랍 국가에 배당된 팔레스타인의 남은 지역은 1948년과 1967년 사이에 요르단(웨스트 뱅크)과 이집트(가자 지구)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였다. 그 때로부터 팔레스티니안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확인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충돌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실패해 왔고,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주장했다. "팔레스티니안이라는 것은 없었다.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을 팔레스티니안이라고 생각하는 종족이 있었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장은 아랍 민족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말은 1948년 이전에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1948년 이전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상황은 종종 논란이 되지만, 중동 분쟁 양쪽 진영 모두 오늘날 팔레스티니안 인들이 그 땅에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은 그들만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주지역

팔레스타인 아랍족은 세계 곳곳에 있다. 대부분은 웨스트 뱅크와 가자 지구에 산다. (WBGS). 다른 이들은 피난민으로서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에 산다. (주로 중동, 유럽, 북, 남 아메리카)

소수의 팔레스티니안들만이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전통과 고향 땅에 깊은 정체성을 두고 있다.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 지구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가 많고, 그들의 고향과 민족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웨스트뱅크 뿐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국가적 권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생활양식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것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다. 국제 언론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전쟁광 아니면 연약한 피해자로 그린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이야기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림 켈라니는 쿠웨이트에서 자란 팔레스타인인으로 해양 생물학 박사이지만,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재즈, 블루스를 하는 예술가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쾌하고, 관대하고, 친절하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손님 접대를 잘 하며,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손님들을 위해 고급 저녁을 준비한다. 그들은 특별한 행사, 특히 결혼식에서 전통 춤을 추곤 한다. 시와 음악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여자들은 전통적인 문양으로 수를 놓는 데 매우 뛰어나다. 음식 또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주로 쌀, 야채, 닭 고기를 여러 방식으로 요리한다.

많은 팔레스타인 남자들은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 웨스트뱅크와 가자에 와서 살기도 한다. 2000년 9월 소요가 시작되기 전에, 가자인들은 웨스트뱅크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팔레스타인과 결혼해서 가자에 살고 있는 외국 여자들도, 그 작고 가난한 지역에 갇히게 되었다. 그들은 집에 있는 친구와 친지들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로질러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외국 여성들이 수 백명 된다고 믿어진다.

종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순니파 무슬림들이다.

사도 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첫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 역사가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몰락한 후에도 예루살렘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135년 바 코바 반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자비했고, 예루살렘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 결과 크리스천 유대인 공동체는 효과적으로 사라졌다. 313년 콘스탄틴의 개종으로 인해 성지에 크리스천들이 등장했고, 그 후 3세기 동안 로마 제국 각 지역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흘러들어왔다. 크리스천들은 다수가 되었고, 성지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성 히에로니무스(Jerome)가 그 중 하나였다.

AD 640년에, 무슬림 아랍이 성지에 침입했고, 예루살렘을 빼앗았다. 성지의 교회는 점차 사라져 갔고, 무슬림 주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종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러 크리스천 종파들이 살아남았다. (그리스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네스토리우스교, 시리아 정교, 아르메니안,

콧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라비아에 있던 크리스천들도 성지의 형제들과 합세하였고, "팔레스티니안" 아랍 크리스천 인구가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2-13세기에는 십자군 왕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무슬림 세력이 돌아온 후에도 동방 크리스천들은 성지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불렀다.

그 후 600년간, 무슬림 술탄들이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과 핍박으로 인해 크리스천 공동체들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19세기에 성지의 크리스천 인구는 15,000명에 불과했다. 그 후, 이 숫자는 오토만 제국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유럽 국가들이 투르크족에게 통치를 "자유화"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한 세기 동안 증가하였다. 동시에 서구 장로교인들은 성지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면서, 상당수의 팔레스티안 크리스천들이 성지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팔레스티니안 지역의 암울한 경제 상황 때문이었다.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이들 종족 가운데 거하며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 팔레스타인 아랍종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신실한 중보자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소수의 팔레스타인 아랍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 그들의 전통적인 무슬림 문화가 느슨해짐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이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길 기도하자.
- 팔레스타인 아랍 가운데 담대한 지역교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 이들의 주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완성되도록 기도하자.